

이기는 삶

# 순리(順理)대로 살자

신라 의상조사(625년~702년)가 화엄경(華嚴經)의 내용을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에 맞춰 7차 30구로 요약해 만든 노래인 법성계(法性偈)에 不守自性 隨緣性(불수자성수연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마치 물처럼 인연 따라 만들어 간다는 뜻이다. 물은 모양이 없다. 물이 그릇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담기듯이 무엇이든 인연에 따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같이, 바람같이 대자유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인생(人生)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고 구름처럼 흐르는 것이 세월이다. 그 세월 속에서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 나쁜 일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일들은 쓰던 달던 나에게서는 인생의 큰 스승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보다 곱은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 그때 곱은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불평을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된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딪혀 보자는 생각을 하면, 곱은일도 좋은 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

아 그르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의 일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서야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된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慾心)이다. 100가지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가진 사람의 것이 탐이 나서 빼앗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니 욕심은 죄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感謝)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福)이 오지만 불평(不平)하는 자에게는 화(禍)가 닥치는 법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력(努力)해야 할 것은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더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집착



하다 보면 오히려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다. 재물이 많으면 근심만 쌓인다. 특히 한국 사람은 자신이 쓸 돈뿐만 아니라 자식이 쓸 돈까지 벌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번 돈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수저로 태어난 자식이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란 탓에 조금의 어려움에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여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리에 연연(戀戀)하다보면 불명예를 안게 되고 결국 빨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을 하게 된다.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자. 그저 물 흐르듯이 바람결 따라 순리와 진리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가?\*



수니의 요가교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희생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나라는 주체의식에서 해방이 되어야 하 나뉠을 보는 눈과 그 시각이 바로 열리는 것이다. 그때부터 죄악의 생각이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있는 한, 항상 나라는 주체의식인 마귀의 조종을 따라 움직이는고로,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다. 항상 죄 안에서 살게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생각을 깊이하고 오래해도 안 된다. 나를 버리기 전까지는 안 된다. 나를 버리는 방법은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희생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서 되는 것이다. 희생적인 생활 없이는 "내 몸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희생보다 더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비틀어지고 이곳저곳 아픈 몸, 바로 균형있게 만드는 요가\*\***

**동작①:** (어깨 펴기) 금강좌로 목을 바로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민다. 두

팔은 등 뒤로 깎지 낀다. 이 상태에서 조금씩 상체를 앞으로 숙여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한다. 이때 팔은 가능한 수직이 되도록 한다. 20~30초 유지. 5회.

**동작②:** (척추 좌우 비틀기) 왼쪽 무릎을 세워 편안하게 구부러진 오른쪽 허벅지 위로 교차시킨다. 오른팔을 활용해 왼쪽 무릎을 오른쪽 겨드랑이 가까이 당기고 왼쪽 팔은 등 뒤로 돌린 채 어깨와 목을 함께 비튼다. 20~3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③:** (어깨서기) 바닥에 곧게 누운 후 등의 중간부분까지 들리게 다리를 쭉 뻗어 올린다. 이때 손으로 허리를 지탱하고, 허리와 목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0~30초 유지. 5회.

**동작④:** (나무자세) 바르게 서서 팔은 위쪽으로 쭉 뻗어 합장하고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붙인다. 20~3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67회

### 未連歌말운가

回來朝鮮大運數 회래조선대운수  
東西南北不違來 동서남북불위래  
佚鬼敵人是非障 일귀적인사비장  
錦繡江山我東方 금수강산아동방  
天下聚氣運回鮮 천하취기운회선  
太古以後初樂道 태고이후초락도  
始發中原樞花鮮 시발중원화선  
列邦諸民父母國 열방제민부모국  
萬乘天子王之王 만승천자왕지왕  
天地作罪妖魔人 천지작죄야마인  
坐井觀天是非判 좌정관천사비판  
無福之人可笑哉 무복지인가소재  
偶然自然前路運 우연자연전로운  
耳目聽聞海運數 이목청개해운수  
遠助輸荷物緞帛 원조수하물단백  
金銀數歸來 금은귀국래  
鸞龍天國建設運 계룡천국건설운  
千里萬里遠邦諸人 천리만리원방제인  
勢折捕擄奉事者 세절포로봉사자

동방의 조선(한국)에 천하의 대운(大運)이 돌아오니 동서남북 온 세계 각국에서 어김없이 한국을 찾아오리라. 그러나 요사(妖邪)한 마귀가 대적하니 시비(是非)와 장애(障礙)가 있으리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금수강산(錦繡江山)이로다. 천하의 모든 기운이 모여 조선(한국)에 돌아오니 태고(太古)이후 처음으로 불사영생(不死永生)의 극락(極樂)에 이르는 도(道)가 나와서 무궁화의 나라 한국 땅이 처음으로 세계의 중심국이 되며 세계열방의 부모국이 되는 것은 만승천자(萬乘天子) 왕중왕(王中王=구세주=메시아=미륵불)이 출현했기 때문이니라.

천지에 죄를 지은 요사한 마귀의 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듯 좁은 안목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 그

## 정도령의 출현으로 불사영생의 도가 나옴에 따라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 세계의 부모국이 되리라



들은 참으로 복 없는 사람들이요 가소롭기 짝이 없도다. 우연히 자연스럽게 앞길의 운이 열리니 귀와 눈으로 듣고 볼 수 있는 해상의 운수루다.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에서 비단, 폐백(幣帛)과 금은보화 등의 화물을 싣고 와서 계룡천국(鷲龍)의 나라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도울 운수루다.

천리만리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굴복당하며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도 이제는 천지공사를 받들게 되느니라.

苦盡甘來嘲笑盡 고진감래조소진  
好去悲來異方人 호거비래이방인  
鳥靈車運車神飛機 조정차운차신비기  
天使往來瑞氣滿 천사왕래서기만  
我邦雲霄高出世 아방운소고출세  
折長報短天恩德 절장보단천은덕  
無價大福配給日 무가대복배급일  
晝眠夕寐不受福 주면석매불복  
家家滿福人人溢 가가만복인인일  
先苦克己受嘲人 선고극기수조인  
是亦可笑之運也 시역가소지운야

고생 끝에 즐거움이 돌아오고 비웃음이 그치니라. 정도령의 영생의 진리를 비방하던 이방인에게는 좋은 세월 다 지나가고 슬픈 일이 오게 되리라.

천사가 금비둘기 같은 새 모양을 한 번 개처럼 빠른 신비한 비행기를 타고서 왕래함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우리나라는 구름이 하늘에 높이 뜬 것처럼 세계에서 우뚝 솟은 지도국(指導國)으로 드러나리라. 긴 것은 자르고 짧은 것은 보태는 하늘의 은덕을 힘 입어 값없이 영생의 큰 복을 나누어 주는데도 받들므로 잠만 자고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자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집집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넘쳐나느니 이전에 먼저 고생하며 나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요 남의 조소를 받던 사람들이니라. 이 역시 조소하던 사람들이 어찌구미 없는 웃음을 받을 운수루다.

### 極樂歌 극락가

近來近來極樂勝國 근래근래극락승국  
近來極樂消息 근래극락소식  
坐聽遠見苦待 좌청遠見苦待  
極樂消息忽然來 극락소식홀연래  
遠理自長輿理國 원리자장오리국  
極樂向遠發程時 극락향원발정시  
一字縱橫出帆일자종횡출범

심승의 나라 극락이 가까이 오는도다. 점점 가까이 오는도다. 극락이 머지않아 온다는 소식을 알아서 듣고 저 멀리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다가 극락이 어느 날 갑자기 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네.

심원한 진리로서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심오한 이치의 나라인 극락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날 때 심승의 뜻을 달고 영생의 방주가 출발하리라.\*

박명하 / 고서연연구 myunghpark23@naver.com

### 나를 이기는 길

## 사랑은 희생이다

그럼 부부 간의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은요?

선생님: 부부란 친구이지 음란의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부인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존경하여야 하며, 부인도 남편을 똑같이 부처님처럼 여기고 존경하여야 한다.

부처님이라뇨?

선생님: 사람은 누구나 원래 부처님이었으므로 부처님처럼 여겨야 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에 누구든지 부처님처럼 여기라는 뜻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부처님처럼 여기고 존경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부부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속으로 '저, 웬수!' 그러며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남편은 부인을 부처님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고, 부인도 남편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섬기는 생활을 해 보도록 하라. 그러면 집안이 극락 천국이 되는 것이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여길 때 자신의 마음속에 극락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다.

선생님: 또한 자식도 부처님으로 여겨야 한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자식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섬겨야 한다. 부처님에게 하듯이 지극한 사랑을 자식에게 해 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를 사랑한다고 잘못을 보고 나무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버릇 없는 아이가 된다.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를 마치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여 물 떠와라, 뭐 해라 막 부러먹는 것은 잘못이다.

플라토너하고 아가페적 사랑을 꿈꿨던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 사랑은 이성에 대한 사랑이었고, 성을 매개로 한 동물적 사랑이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성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로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술로는 거룩하게 아가페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에로스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형제와 친구에 대해서도, 이성에 대해서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